

# 대학생의 인터넷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하종원\*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본 연구는 정치적 소수자의 하나인 대학생들 중심으로 인터넷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참여의 양태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정치참여 방식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총 22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몇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정치효능감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에 걸쳐 정치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 정치신뢰감은 어떤 형태의 정치참여방식에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의 상호작용효과는 온라인상의 정치참여에서 나타났다. 높은 정치효능감의 집단에서 낮은 정치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 정도의 정치효능감의 집단에서는 높은 정치신뢰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정치참여도를 보였다. 그러나 낮은 정치효능감 집단에서는 정치신뢰감의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치참여의 구조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정치참여, 인터넷,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전통적 정치참여, 비전통적 정치참여

## 1. 들어가며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가 주창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그것은 선출한 대리

\* won@sunmoon.ac.kr

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투표나 집회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부형태를 일컫는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시민의 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투표, 이익집단의 성원으로로서, 선출한 정치가나 관료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토론 등이 그것이다(Fereber, Foltz & Pugliese, 2005, p. 85). 그러나 그런 이론과는 달리 현실의 정치세계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참여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아 있다.

한 사회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구조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한 사회의 근대화 수준, 정치체제, 그리고 정치조직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한편 후자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적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관심 및 동기적 요인 등을 일컫는다(Verba & Nie, 1972). 특히 이런 개인적인 차이는 정치참여를 불평등하고 차별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흔히 ‘정치체제에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되는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바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의 정도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구비한 전문직종의 남성, 즉 정치적 영역과 이미 잘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Madsen, 1987; Niemi, Craig & Mattei, 1991). 그러나 한편 자신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설득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Bandura, 1997). 따라서 정치효능감이 실제로 자극되고 발전되어 개인의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민주적 정부를 도모하고 일반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켜 주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은 공중참여의 범위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으로서 평가받으며, 최근의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이런 개혁의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Fereber, Foltz and Pugliese, 2005). 특히 인터넷은 낮은 비용, 손쉬운

이용, 그리고 광범위한 전파능력의 견지에서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과연 인터넷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Weber, Loumakis and Bergman, 2003).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이 실제로 정치적 소수자들, 특히 낮은 정치효능감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공공영역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젊은 층들은 중장년층들과 비교하여 낮은 정치참여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선거나 전통적인 정치참여에 있어서 더욱 그런 현상을 드러낸다(김영경, 1999; 홍덕률, 2003; Putnam, 2000). 그러나 정치적 소수의 하나인 젊은 층들의 정치참여는 복잡한 사회구조의 제 현상들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또 하나의 사회현상이다(Hess, 1971). 그것에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인터넷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인터넷은 다른 어떤 연령 집단보다도 익숙한 존재이다. 미국의 경우 30세 이하의 연령층 중 8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단지 30%밖에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rueger, 2002). 75%의 광역대 보급률의 인터넷 하부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저널리즘을 꽃피우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정치참여의 욕구를 갖고 있는 젊고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지적된다(Oh, 2004). 실제로 지난 2003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여준 네티즌의 존재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랫동안 정치적 무관심을 드러내고 전통적인 정치참여를 거부해 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치참여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데 한국은 매우 유효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참여의 양태의 변화를 정치적 소수자의 하나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정치참여 방식의 발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정치참여와 정치효능감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정치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정권의 선택, 정부 구조 혹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시민의 행동을 말한다(Verba & Nie, 1972; Conway, 1991). 그러나 사실상 그 의미와 범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여 많은 연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개념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참여라는 것이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콘웨이는 광범위한 정치참여 개념을 채택하여 다시 이를 능동적(active) 및 수동적(passive) 참여형태로 나누었다(Conway, 1991, p.13). 능동적 참여는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투표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해당 관청에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말한다. 수동적 참여는 일반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정치과정에서 일어나는 제 현상에 대해 단순히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던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추구 역시 이러한 수동적 정치참여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리 보자면, 정치참여는 다양한 행위의 실제적인 시행이라는 행동적 차원과, 정치현상에 대한 주목과 관련 정보의 습득이라는 인지적 차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정치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갖거나 혹은 가질 수 있는,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의미한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p.187). 이러한 정의에 기저에는, 정치변화가 가능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 자신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정치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정치체제나 정치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 Hess(1971)는 이러한 정치효능감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즉 정치체제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신뢰감(trust), 자신이 그 체제를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confidence), 그리고 정치체제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믿음(belief) 등이다.

정치효능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Lane(1959)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정치효능감을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나누었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반면 외적 효능감은 개인의 그런 요구에 대해 정치집단 및 정부가 응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Balcih, 1974; Converse, 1972; Niemi, Craig & Mattei, 1991;). 나아가 내적 효능감은 이해와 참여의 혼합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Craig, Niemi & Silver, 1990; Niemi, Craig & Mattei, 1991). 또한 외적 효능감은 체제기반적 효능감(system-based efficacy)이라고도 칭해진다(Shingles, 1981). 정치효능감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개념의 구분은, 정치체제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사람들이 어떤 상황 하에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Newhagen, 1994). 그 두 가지 효능감 모두에 있어 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은 높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높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adsen, 1987; Niemi, Craig & Mattei, 1991; Pollock, 1983), 어린이의 경우 IQ와 경제적 수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Hess, 1971)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능동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는 정치효능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bramson & Aldrich, 1982; Acock, Clarke & Stewart, 1985; Finkel, 1985; Stewart, Kornberg, Clarke, & Acock, 1992). 또한 정부 및 관리와의 접촉행위가 정치효능감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Hirlinger, 1992; Milbrath, 1965; Peterson, 1990; Sharp, 1984; Vedlitz & Veblen, 1980; Verba & Nie, 1972; Zimmerman & Rapport, 1988). 핀켈과 뮐러(Finkel & Muller, 1998)에 따르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는 인과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미래의 정치적 행동까지도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제시된다. 한국에 있어서도 정치효능감은 투표행위(김무곤 & 김관규, 2004), 온라인 서명과 사이트 방문(박선희 & 주정민, 2004), 정치적 서명이나 정치모임참석, 기부금 기탁 등과 같은 투표 외적인 정치행위 등(강내원, 2004)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내적 효능감 및 외적 효능감의 11개 요인 중 단지 1개의 요인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제한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박상호 & 성동규, 2005).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편으로 이제는 다분히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전통적/관습적 정치참여와 비전통적/비관습적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행동유형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은 정치적 동원(mobilization)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양식들간의 구별이다. 투표, 캠페인 활동과 같은 전통적/관습적(conventional/ traditional) 정치참여 양식을 권장하는 정치환경에서 시위나 소요와 같은 비전통적/비관습적(unconventional/untraditional) 행위유형을 용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Siegelman & Feldman, 1983).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두 유형의 정치참여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도록 만드는 동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강한 정치효능감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며 정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lbrath, 1965; Paige, 1971). 반면 정치효능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전통적인 정치참여방식보다는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방식에 호소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ll, 1964; Kornhauser, 1959; Lipset, 1960; Ransford, 1968). 한편 폴록(Pollock, 1983)은 내적 및 외적 정치효능감 양자 모두에 있어서 높은 정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정치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통적 정치참여에 있어서 정치효능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진적인 정치참여의 방식을 단지 정치효능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자각과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갠슨(Gamson, 1968, 1971)은 정치효능감의 영향을 보다 강력하게 발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와 체제에 대한 불신감(mistrust)을 제시하였다. 즉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정치참여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정치효능감의 집단 중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낮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요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호킨스 등(Hawkins et al., 1971)도 비전통적인 정치참여는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의 사람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논하였다. 페이지(Paige, 1971) 역시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의 사람들이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의 사람들보다 소요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크레이그(Craig, 1979)는 정상적인 정치적 채널외의 정치행동에 연류되거나 그러한 시도를 용인하려는 개인의 성향을 ‘탈체제 정향’(extra-system orientation: EXTRA)이라고 명명하며,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이것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논하였다. 따라서 높은 정치신뢰감과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비정통적 정치행위를 허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불만족이 EXTRA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Craig & Magiotto, 1981). 결국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질

때 급진적인 정치행동을 드러낼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와츠(Watts, 1973)는 ‘과정참여’(process commitment), 즉 기존 체제 내에서 정치참여를 하려는 성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높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감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과정 참여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 집단들이 기존 규범에 반하는 정치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도리어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과정참여, 즉 비전통적 정치참여의 양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정치효능감이 비전통적 정치행동과 연계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시겔만과 펠트만(Siegelman & Feldman, 1983)은 전통적인 정치참여의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높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감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비전통적 정치참여의 경우에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 두 가지 개념은 비전통적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밝혀주는 것에 그치며, 따라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전통적인 정치참여와는 달리, 비전통적 정치참여를 이끄는 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인터넷과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은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와 차이를 가진다. 말하자면, 인터넷에 있어서는 능동적 및 수동적 정치참여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며, 인지적 및 행동적 참여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의 도입이 실제로 기존의 정치참여의 양상을 변화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강화적 관점(reinforcement perspective)과 확장적 관점(expansionist perspective)이 그것이다.



강화적 관점은 인터넷의 정치적 자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용되기 보다는 매스 미디어와 같은 전통적인 채널들을 이용하며 이미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소수의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인터넷은 결국 기존의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과 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이 보다 강조된다(Bimber, 1998; Norris, 1999; Williams, 1977). 그에 대한 증거로 흔히 미국에서 남성, 백인 및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접속한다는 것이 제시된다(Anderson, Bikson, Law & Mitchel, 1995; Bimber, 2000; Krueger, 2002). 데이비스(Davis, 1999) 역시 인터넷이 정치과정과 정치기관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을 분명 갖고 있지만, 그 방향이 기존의 정치적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00년도 16대 총선 중의 미디어와 인터넷 이용행태를 조사한 연구(황용석, 2001)에 따르면, 인터넷이 야기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흐름의 증가가 기존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인터넷은 모든 이들의 공유물로서보다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위집단에 의해 휘둘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정치참여의 과정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터넷의 능력은 공론에 그치며, 결국 참여의 불평등이라는 기존의 패턴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반면 확장적 관점은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주변부에 밀려 있는 사람들 — 예컨대, 젊은 세대나 정치적 소수자들 — 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화하며 연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논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정치행위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이슨 등(Dyson et al., 1994)은 웹이 시민들이 기존의 정부조직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참여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논하였다. 그로스만(Grossman, 1995)은 인터넷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치참

여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크루에거(Krueger, 2002)는 강화적 관점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의 급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이 점점 더 대중화됨으로써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 인터넷은 새로운 사람들을 정치과정으로 이끄는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3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대안언론의 역할을 살펴 본 결과, 이는 온라인 의견형성, 정치참여, 그리고 오프라인의 투표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온라인 정치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새로운 의견지도자로 부상함을 밝혀냈다(박선희 & 주정민, 2004).

전반적으로 보면, 그 기술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아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편차를 넘어 섰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치환경을 변화시킬 인터넷의 잠재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실세계에서는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이버공간은 분명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연구(Wilhelm, 1998)에 따르면, 18~35세의 젊은 층과 흑인들이 각각 중장년층과 백인들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전통적인 정치참여에 보다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정치참여의 통로로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이 점차로 보편적인 사회기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치참여 양태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배제된 정치적 소수의 하나인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인터넷이

유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참여의 현황과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러한 정치참여의 유형과 정도가 개인의 정치효능감 및 정치 신뢰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가.

## 2) 연구방법

### (1) 연구변인 및 측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으로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설정하였다. 정치효능감은 다시 내적 효능감(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외적 효능감(개인의 그런 요구에 대해 정치집단 및 정부가 응답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내적 효능감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Cronbach alpha=.70이었으나, 외적 효능감은 .42로 나타나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제외시켰다. 실제로 내적 효능감을 정치효능감으로 대체하는 것이 연구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며(Craig, Niemi & Silver, 1990), 실제연구가 시행되고 있어(강내원, 2004) 본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을 내적 효능감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치신뢰감은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Watts, 1973의 Political Alienation Scale 참조)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Craig, Niemi & Silver, 1990의 Incumbent-Based Trust 참조)의 두 가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인자분석결과, 이는 단일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내적일치도 역시 Cronbach alpha=.80으로 높게 나타나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였다.

종속변인인 정치참여의 유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측면(Krueger, 2002 참조)과 전통적 및 비전통적 참여(Siegelman & Feldman, 1983 참조)의

두 측면, 총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치참여는 실제의 행동경험과, 차후의 행동의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 유형별 설문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의 측정척도의 신뢰도 검토 (Cronbach alpha)

변인 및 설문	M	SD	N
<b>정치효능감a (α = .70)</b>			
- 내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라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잘할 자신이 있다.	2.76	.70	221
-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치현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2.66	.65	221
- 나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2.36	.65	221
- 다른 사람들과 정치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내 자신의 판단이나 주관을 갖기 힘들 때가 있다.	2.49	.71	221
- 나는 정치에 직접 참여할만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2.40	.67	220
<b>정치신뢰감b (α = .80)</b>			
- 국회의원이거나 공직 출마를 위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타협이나 청탁을 해야만 한다.	3.22	1.29	207
- 대부분의 정치인은 국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신뢰할만한 인물들이다.	2.32	.76	206
-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타협은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2.65	.90	205
-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선거 중 내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45	.80	206
- 지금의 두 거대 여야정당은 모두 다 가진 자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끌여지고 있다.	2.12	.96	207
-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한다고 믿을 만하다.	2.39	.84	207
- 현 정부는 종종 전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2.20	.98	205
- 현 정부의 지도자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2.29	.85	207

-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2.71	.95	207
-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한 편이다.	2.24	.79	207
<b>오프라인 전통적 참여 a</b> (참여경험 $\alpha = .72$ / 참여의사 $\alpha = .80$ )			
- 친구나 동료들과 정치에 관해 토론한다.	2.09/2.49	.68/.75	207
- 친구들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라고 설득한다.	1.36/1.52	.62/.72	206
-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행동한다.	1.63/1.96	.78/.80	208
- 정치관련 집회에 참석한다.	1.22/1.52	.50/.73	208
-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편지, 전화하거나 직접 접촉한다.	1.09/1.38	.37/.62	208
-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위해 일해보거나 기부금을 낸다.	1.07/1.32	.30/.57	208
<b>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 a</b> (참여경험 $\alpha = .74$ / 참여의사 $\alpha = .78$ )			
-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항의하거나 탄원하는 운동에 서명한다.	2.15/2.38	.79/.91	208
- 사회단체가 벌이는 신문구독이나 TV시청 거부운동에 참여한다.	1.57/1.98	.71/.84	207
- 항의시위나 집회에 참여한다.	1.35/1.65	.67/.80	208
<b>온라인 전통적 참여 a</b> (참여경험 $\alpha = .74$ / 참여의사 $\alpha = .86$ )			
-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치관련 정보를 얻는다.	2.63/2.97	.87/.87	208
-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한다.	1.63/2.21	.80/.91	208
-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다.	1.18/1.51	.45/.81	208
- 정치나 시사관련 인터넷 카페(커뮤니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1.28/1.57	.60/.81	207
-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1.10/1.42	.42/.69	208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회원이다.	1.15/1.40	.43/.67	208
-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을 낸다.	1.05/1.26	.29/.57	208
<b>온라인 비전통적 참여 a</b> (참여경험 $\alpha = .69$ / 참여의사 $\alpha = .72$ )			
- 인터넷상으로 벌어지는 항의나 반대운동에 서명한다.	1.90/2.18	.84/1.01	205
-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메일을 보내어 접속다운을 시도한다.	1.10/1.20	.41/.55	204

-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려 시도한다.	1.02/1.11	.16/.40	205
-----------------------------------	-----------	---------	-----

a: 응답은 4점 척도(4=매우 자주, 3=자주, 2=가끔, 1=안한다)

b: 응답은 5점 척도 (5 = 매우 동의한다, 4 = 동의한다, 3 = 보통이다, 2 = 반대한다, 1 = 매우 반대한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4년 11월 서울, 수도권 및 지방의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울소재 대학이 97명(43.9%), 수도권 소재 대학이 65명(29.4%), 그리고 지방소재 대학이 59명(26.7%) 등 총 2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117명(56.8%), 여자가 89명(43.2%)으로 나타났다. 1학년이 78명(33.7%), 2학년이 58명(27.9%), 3학년이 44명(21.2%), 4학년이 36명(17.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살이었다. 응답자의 3/4 이상(78.9%)이 자신이 중류 이상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참여 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r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정치참여의 현황을 일원변량분석으로,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에 따른 정치참여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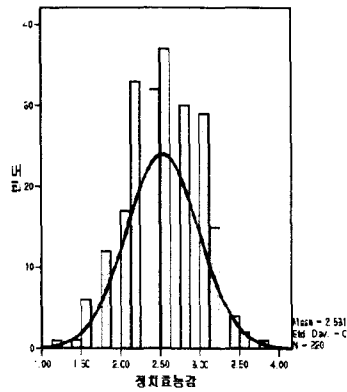
### 1) 집단의 구성

실제 조사의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분포도는 다음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 별로 <표 2>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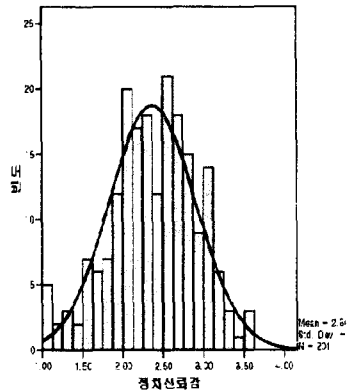
<표 2>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상·중·하 집단간의 차이

	집단별	사례수	평균	F	유의확율
정치효능감	상집단	81	3.01	496.931	.000
	중집단	69	2.51		
	하집단	70	2.01		
정치신뢰감	상집단	51	3.01	478.136	.000
	중집단	68	2.39		
	하집단	54	1.68		

[그림 1] 정치효능감의 분포



[그림 2] 정치신뢰감의 분포



## 2)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참여의 현황과 상호관계

대학생들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통적 및 비전통적 양식의 정치행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또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의 경험은 2점 미만(범위: 4~1)으로 나타나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참여방식의

<표 3> 유형별·집단별 정치참여 현황

	참여경험								참여의사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전통적		비전통적		전통적		비전통적		전통적		비전통적		전통적		비전통적		
성별	남자 (116)	m=1.67	F=7.63	1.66	.416	1.16	.521	1.05	.153	1.87	.218	1.92	4.212*	1.42	.060	1.17	.751
	여자 (88)	1.53	**	1.71		1.13		1.05		1.91		2.12		1.44		1.17	
학년별	1 (70)	1.59		1.77		1.13		1.06		1.94		2.16		1.46		1.16	
	2 (58)	1.56		1.66		1.17		1.06		1.88		1.89		1.38		1.11	
	3 (44)	1.66	1.352	1.77	1.900	1.17	.261	1.06	.020	1.84	.506	2.04	2.762	1.51	.721	1.20	.391
	4 (36)	1.70		1.53		1.12		1.07		1.85		1.83		1.34		1.14	
지역별	서울 (95)	1.63		1.66		1.15		1.06		1.88		2.00		1.46		1.30	
	수도권 (62)	1.60	.105	1.73	.273	1.17	.360	1.08	.332	1.91	.141	2.02	.033	1.43	.499	1.15	1.886
	지방 (49)	1.61		1.67		1.12		1.04		1.87		2.01		1.35		1.24	
주관적 계층의식	상 (10)	1.89		1.93		1.36		1.30		1.97		2.13		1.92		1.30	
	중상 (4)	1.60		1.72		1.13		1.02		1.94		2.07		1.43		1.08	
	중 (111)	1.60	1.290	1.63	2.088a	1.15	1.275	1.06	1.601	1.89	.913	1.94	2.113b	1.45	2.188c	1.14	1.930
	중하 (35)	1.67		1.86		1.19		1.09		1.85		2.21		1.34		1.30	
	하 (7)	1.45		1.33		1.00		1.00		1.60		1.50		1.03		1.03	

응답은 매우 자주 (4) - 자주 (3) - 가끔 (2) - 안한다 (1)의 4점 척도로 측정

\* p<.05, \*\* p<.01, \*\*\* p<.001

a: p=.084, b: p=.081, c: p=.072



경우, 오프라인 참여방식에 비해 훨씬 낮은 참여도를 보여, 정치참여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인터넷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앞으로의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제경험보다 높게 나타나 그 잠재적 가능성은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정치참여방식은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즉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비전통적인 방식에 있어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전통적: 1.61, 비전통적: 1.68). 이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형식의 정치참여 방식에 대해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과, 촛불시위와 같은 체제 외적형식의 의사표명이 도리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참여가 적지 않다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반면 온라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비전통적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전통적: 1.15, 비전통적: 1.06). 이는 오프라인의 경우 비록 비전통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의 동지적 연대감과 심리적 안정성을 갖는 반면,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본인의 참여의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참여경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참여의사의 경우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오프라인: 전통적 1.89, 비전통적 2.01; 온라인: 전통적 1.43, 비전통적 1.15).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정치참여의 양상은 전반적으로 그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성별에서는 오프라인 비전통적 방식에 있어 여학생이 더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것이나(남자: 1.92, 여자: 2.12;  $F=4.21$ ,  $p<.05$ ),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 중하류계층 인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전통적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경험과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집단 혹은 비주류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론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비전통적인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점은 일종의 공격적·반동

< 표 4 > 정치참여의 제 유형간의 상관관계 (Pearson r)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온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1.000	.654	.623	.459	.686	.635	.494	.294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1.000	.420	.293	.577	.719	.401	.251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1.000	.606	.472	.333	.594	.515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1.000	.321	.291	.385	.607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1.000	.701	.639	.340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1.000	.546	.327
온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1.000	.466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1.000

\* 모든 경우의 유의확율은  $p < .01$ .

적 모습의 일면으로 비추어진다. 한편 온라인 참여경험 및 참여의사에 있어 상류계층 인식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접속한다는 강화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정적 관계를 나타나 오프라인의 참여가 비교적 온라인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하지만 전통적 참여와 비전통적 참여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통적 참여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현실참여가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r=.623, p<.01$ ), 비전통적 참여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293, p<.01$ ). 오프라인에 있어서 전통적 방식보다 높게 나타났을 정도로 대학생들이 관여하고 있는 비전통적 방식의 참여가 온라인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프라인의 경우 집단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의 연대감과 안정성을 갖는 반면, 온라인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라는 점에서 의외로 경직되고 거부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미래의 참여의사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재확인되었다(전통적 방식:  $r=.639, p<.01$ ; 비전통적 방식:  $r=.327, p<.01$ ). 한편 전통적 참여와 비전통적 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관계없이 전통적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전통적 방식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프라인:  $r=.654, p<.01$ ; 온라인:  $r=.606, p<.01$ ).

### 3)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이 정치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의 견지에서 살펴 본 결과,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변량분석표는 [첨부]의 <표> 참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향은 정치효능감의 주효과이다. 대체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참여의 경험이 많으며, 미래의 참여의사도 높게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정치효능감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요약

	참여 경험				참여 의사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전통적	비전통적	전통적	비전통적	전통적	비전통적	전통적	비전통적
정치 효능감의 주효과	O*** (상>중> 하)	O*** (상,중> 하)	O* (상,중> 하)	O* (중>상> 하)	O*** (상>중> 하)	O* (상>중> 하)	O** (상>중> 하)	X
정치 신뢰감의 주효과	X	X	X	X	X	X	X	X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X	X	O*	O**	X	X	X	X

\* p<.05, \*\* p<.01, \*\*\* p<.001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한 실제 참여경험에 있어서 上집단과 中집단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 두 집단에 비해 下집단이 뚜렷하게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上집단: 1.76, 中집단: 1.64, 下집단: 1.37). 즉 정치효능감의 정도는 낮은 경우에 더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정치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정치참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며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낮은 정치효능감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미약한 온라인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上집단: 1.20, 中집단: 1.20, 下집단: 1.06).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지위와 정치효능감이 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논지에 비추어보자면,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이 사회적 약자를 정치현장에 끌어들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장적 관점과는 반대의 논거로 비추어진다.

비전통적 참여방식 역시 정치효능감 下집단이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여, 정치효능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전통적인 정치참여방식보다는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방식에 호소하는 성향이 높다는 지적들(Bell, 1964; Kornhauser, 1959; Lipset, 1960; Ransford, 1968)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방식에 있어 정치효능감 中집단이 上집단보다 높은 참여경험을 보인

것(상집단: 1.06, 中집단: 1.15, 下집단: 1.00)이나,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비전통적 참여의사에 있어서도 中집단이 上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상집단: 1.17, 中집단: 1.27, 下집단: 1.08)은 온라인이라는 대안적 정치참여의 수단과, 체제외적 정향(extra-system orientation; Craig, 1979)의 공격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만드는 요소의 하나로 정치효능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정치신뢰감은 정치효능감과 달리 실제 참여경험 뿐만 아니라 미래 참여의사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나 정부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의 정도가 그 자체로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정치 및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나 불신하는 사람 양자가 그 나름대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8개 정치참여방식 모두에 있어서 미약한 차이기는 하지만 정치신뢰감 中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첨부의 표 참조). 즉 신뢰와 불신 양극의 집단이 중도적인 정치신뢰감의 집단보다는 보다 활발한 정치참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두 가지 요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온라인 정치참여의 두 양식에 있어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의 경우, 정치효능감 上집단에 있어 정치신뢰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참여도(1.08)를 보였으며, 정치신뢰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참여도(1.25)를 보였다. 즉 정치신뢰감이 낮을수록, 정치 및 정부에 대해 불신할수록 더 많은 온라인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정치참여의 모습을 보인다는 갠슨(Gamson, 1968; 1971)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점은 비전통적 방식의 참여경험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치효능감 上집단 중에서 정치신뢰감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신뢰감 上집단: 1.00, 中집단: 1.03, 下집단: 1.13). 이러한 결과는

&lt;표 6&gt;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의 상호작용효과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효능감	신뢰감	평균	평균
상 (67)	상 (17)	1.08	1.00
	중 (20)	1.23	1.03
	하 (30)	1.25	1.13
	계	1.20	1.07
중 (49)	상 (17)	1.38	1.36
	중 (19)	1.12	1.05
	하 (13)	1.12	1.00
	계	1.20	1.15
하 (56)	상 (16)	1.08	1.00
	중 (29)	1.06	1.00
	하 (11)	1.04	1.00
	계	1.05	1.00
F		2.562	4.864
유의확률		.040	.001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감의 사람들에게서 비전통적인 정치참여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Hawkins et al., 1971; Paige, 1971)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정치효능감 중집단에서는 그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 정치신뢰감이 정치참여에 대해 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정치신뢰감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정치참여도를 보였다(上집단: 1.38, 中집단: 1.12, 下집단: 1.12). 마찬가지로 비전통적 참여의 경우에도 정치신뢰감이 높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上집단: 1.36, 中집단: 1.05, 下집단: 1.00).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정치신뢰감의 독립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정치효능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정치신뢰감을 가질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비록 정치과정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효능감을 자각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표현을 온라인을 통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노사모'의 성격에 대한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정치효능감 하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정치신뢰감의 정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정치참여경험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기본적인 정치효능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감의 정도가 정치참여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온라인을 통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치참여의 수준은 아직은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이런 결과로 비추어볼 때, 미약하긴 하지만 현 정권의 젊은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온라인 정치참여가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늴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정치적 효능감은 매우 높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간 정도의 수준이지만, 체제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나름대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정권에 대해 높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반대적 입장의 집단들도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의 정치적 불신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동인은 바로 그들이 자각하고 있는 높은 정치효능감이 라는 점에서 지지적 입장의 집단과는 또 다른 정치참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으며

공론장(public sphere)과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논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인터넷의 등장은 이런 논의들을 보다 심도 있고 다층적으로 고찰하게 만들어주는

토대와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그것의 익명성의 특성은 전통적인 정치참여의 장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양태와 정도, 그리고 그 의미와 한계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기 위한 시론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 대체로 오프라인의 정치참여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이러한 오프라인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터넷은 아직까지는 현실 정치세계에서 주변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를 끌어들이기 보다는, 이미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견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소지가 더 많다고 여겨진다.

인터넷에 가장 접근 용이한 대학생층에서도 온라인 정치의 참여경험 및 참여의사에 있어 경제적 상류계층 인식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참여도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접속한다는 강화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치참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며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정치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논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이 사회적 약자를 정치현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확장적 관점과는 반대의 논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치참여 현상을 단정적으로 강화론으로만 풀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중간 수준의 정치적 효능감을 갖는 경우에도, 정치적 신뢰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인 온라인 정치참여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일면 확장론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온라인 비전통적 방식에 대한 참여의사의 표명에 있어 중하류계층 인식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실제 경험과 대비하여 훨씬 높은 신장률을 보인 것이나, 온라인 비전통적 방식에 있어 높은 정치효능감 집단보다 중간 정도의 정치효능감



집단이 더 높은 참여경험과 참여의사를 보인 것도 인터넷이라는 대안적 정치 참여의 수단이 체제외적의 성향을 띠는 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통적 방식과 비전통적 방식의 유인요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특히 온라인 및 비전통적 방식의 동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며, 정치참여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바로 연령과 세대라는 점에서 피조사자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갖는 의미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중개변인들, 예컨대, 개인의 정치적 관여(*political involvement*), 즉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혹은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적 성향 (*ideological orientation*) 및 정당지지도에 따라 그들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매스 미디어의 일반적인 이용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모형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는 미국과 같이 다양한 정치적 표현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된 서구사회와, 아직까지 민주적 정치참여의 훈련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 비교문화권적 연구를 통해 온라인 정치참여의 양태를 보다 정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 집단 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3호, 116~144.
- 김무곤·김관규 (2004). 대학생 유권자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평가: 제 17대 총선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3호, 134~174.

- 김영경 (1999). 한국의 정치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 '민주화세대'와 '신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41호, 119~133.
- 박상호·성동규 (2005). 미디어 신뢰도가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정치참여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4호, 110~139.
- 박선희·주정민 (200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오마이뉴스 이용자집단의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5호, 214~243.
-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제 16 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3호, 421~459.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64호, 150~191.
- Abramson, P. R. & Aldrich, J. H. (1982). The decline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502~521.
- Acock, A., Clarke, H. D., & Stewart, M. C. (1985). A new model for old measure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Journal of Politics*, 47, 1062~1084.
- Anderson, R., Bikson, T., Law, S. A. and Mitchell, B. (1995). *Universal access to e-mail: Feasibility and societal implications*. Santa Monica: RAND.
- Balch, G. I. (1974). Multiple indicators in survey research: The concept sens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1, 1~4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
- Bell, D. (1964). *The Radical right*. New York: Double Day.
- Bimber, B. (1998). Toward an empirical map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Boston, PA.
- Bimber, B. (2000). Measuring the gender gap on the Internet. *Social Science Quarterly*, 81, 868~867.
- Campbell, A., Guirin, G., & Miller, W.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IL: Row, Peterson.
- Converse, P. E. (1972). Change in the American electorate. In A. Campbell and P. E. Convers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pp. 263~337).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onway, M. M. (1991).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2nd ed.) Washington, DC: CQ press.
- Craig, S. C., Niemi, R. G., & Silver, G.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 Craig, S. C. (1979). Efficacy, trust, and political behavior: An attempt to resolve a lingering conceptual dilemma, *American Politics Quarterly*, 7(2), 225~239.
- Craig, S. C. & Maggiotto, M. A. (1981). Political discontent and political action. *Journal of Politics*, 43, 514-522.
- Davis, R.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yson, E., Gilder, G., Keyworth, G., & Toffler, A. (1994). *Cyberspace and the American dream: A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 <http://www.pff.org/position.html>.
- Ferber, P., Foltz, F., & Pugliese, R. (2005). The Internet and Public Participation: State Legislature Web Sites and the Many Definitions of Interactivity,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25(1), 85~93.
- Finkel, S. E. & Muller, E. N. (1998). Rational choice and the dynamics of collective political action: Evaluating alternative models with panel dat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 37~49.
- Finkel, S. E. (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891~913.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 Gamson, W. A. (1971). Political trust and its ramifications. In A. Gilbert & Soule, J. W. (Eds.), *Social Psychology and political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pp. 40~55).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 Grossman, L.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Reshaping American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Viking.
- Hess, R. D. (1971). The acquisition of feelings of political efficacy in pre-adults. In A. Gilbert & Soule, J. W. (Eds.), *Social Psychology and political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pp. 58~78).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 Hirlinger, M. W. (1992). Citizen-initiated contacting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 multivariate explan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54, 553~564.

- Kornhouser, W. (1959).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Krueger, Brian S. (2002). Assessing the potential of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A resource approach. *American Politics Research*, 30(5), 476~498.
- Lane, R. E. (1959). *Political life: Why and how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 Lee, S. & Stanley, F. (1983). Efficacy, mistrust and political mobiliza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6(1), 118~143.
- Lipset, S. M. (1960). *Political man*. New York: Anchor.
- Madsen, Douglas (1987). Political self-efficacy tes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2), 571~581.
- Milbrath, L. W. (1965).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IL: Rand McNally & Company.
- Newhagen, J. E. (1994). Self-efficacy and call-in political television show case. *Communication Research*, 21(3), 366~379.
- Niemi, R. G., Craig, S. G., & Mattei, F.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407~1413.
- Norris, P. (1999). Who surfs? New technology, old voters and virtual democracy in the 1996 and 1998 US ele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Atlanta, GA.
- Oh, Y. H. (2004). *Korean netizens change journalism and politics: The marriage of democracy and technolog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Forum.
- Paige, Jeffery M. (1971).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810~820.
- Peterson, S. A. (1990). *Political behavior: Patterns in everyday life*. Newbury Park, CA: Sage.
- Pollock III, Philip, H. (1983). The participatory conseq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 research not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6, 400~409.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nsford, H. E. (1968). Isolation, powerlessness, and violence: A study of attitudes

- and participation in the Watts rio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 581~591.
- Sharp, E. B. (1984). Citizen demand making in the urban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654~670.
- Shingles, R. (1981). Black conscious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issing lin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76~91.
- Woody, S. J. & Christopher, W. (2004).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n agency online discussion forum, *Administration & Society*, 36(5), 503~527.
- Stewart, M. C., Kornberg, A., Clarke, H. D., & Acock, A. (1992). Arenas and attitudes: A note on political efficacy in a federal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54, 179~196.
- Vedlitz, A. & Veblen, E. P. (1980). Voting and contacting: Two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suburban community. *Urban Affairs Quarterly*, 16, 31~48.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Watts, M. W. (1973). Efficacy, trust, and commitment to the political process, *Social Science Quarterly*, 54, 623~631.
- Weber, L. M., Loumakis, A., & Bergman, J. (2003). Who participates and why? An analysis of citizens on the Internet and mass public,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1(1), 26~42.
- Wilhelm, A. (1998). Virtual sounding boards: How deliberative is on-line political discuss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1(3), 313~338.
- Williams, P. (1998). How the Internet is being used by political organization: Promises, problem and pointers. Research Paper 1997-1998. <http://www.aph.au/library/pubs/rp/1997-98/98rp11.htm>.
- Zimmerman, M. A. & Rap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725~750.

■ 첨부

정치참여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에 관한 통계표

<표 1>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경험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566 <sup>a</sup>	8	.696	6.609	.000
절편	394.564	1	394.564	3748.012	.000
정치효능감	4.371	2	2.186	20.761	.000
정치신뢰감	.361	2	.180	1.713	.184
정치효능감*	.581	4	.145	1.381	.243
오차	17.265	164	.105		
합계	464.980	173			
수정 합계	22.831	172			

\*a. R제곱 = .244 (수정된 R제곱=.207)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3506	.17337	11
	신뢰감 중집단	1.3990	.16808	29
	신뢰감 상집단	1.3393	.16392	16
	합계	1.3724	.16722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5275	.29384	13
	신뢰감 중집단	1.5639	.31756	19
	신뢰감 상집단	1.7937	.51443	18
	합계	1.6371	.40531	50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7667	.43506	30
	신뢰감 중집단	1.6929	.30136	20
	신뢰감 상집단	1.8235	.27446	17
	합계	1.7591	.36055	67
합계	신뢰감 하집단	1.6243	.39762	54
	신뢰감 중집단	1.5315	.28341	68
	신뢰감 상집단	1.6611	.41301	51
	합계	1.5987	.36433	173

<표 2>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수정모형	8.672 <sup>a</sup>	8	1.084	3.558	.001
절편	426.759	1	426.759	1400.888	.000
정치효능감	5.828	2	2.914	9.565	.000
정치신뢰감	.991	2	.496	1.627	.200
정치효능감*	1.011	4	.253	.829	.508
오차	49.655	163	.305		
합계	532.778	172			
수정 합계	58.328	171			

\*a. R제곱 = .149 (수정된 R제곱= .107)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3636	.27707	11
	신뢰감 중집단	1.3678	.32544	29
	신뢰감 상집단	1.3958	.25000	16
	합계	1.3750	.29172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5897	.43363	13
	신뢰감 중집단	1.7719	.57791	19
	신뢰감 상집단	1.9804	.83725	17
	합계	1.7959	.65552	49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8333	.68788	30
	신뢰감 중집단	1.6500	.45209	20
	신뢰감 상집단	1.9216	.70247	17
	합계	1.8010	.63048	67
합계	신뢰감 하집단	1.6790	.59333	54
	신뢰감 중집단	1.5637	.47231	68
	신뢰감 상집단	1.7733	.69151	50
	합계	1.6609	.58403	172

<표 3>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877 <sup>a</sup>	8	.235	2.362	.020
절편	206.266	1	206.266	2077.002	.000
정치효능감	.655	2	.328	3.299	.039
정치신뢰감	.065	2	.033	.329	.720
정치효능감*	1.018	4	.254	2.562	.040
오차	16.187	163	.099		
합계	247.840	172			
수정 합계	18.064	171			

\*a. R 제곱 = .104 (수정된 R 제곱 = .060)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온라인 전통적 참여경험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0364	.08090	11
	신뢰감 중집단	1.0552	.15943	29
	신뢰감 상집단	1.0750	.14376	16
	합계	1.0571	.14124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1231	.38763	13
	신뢰감 중집단	1.1158	.23396	19
	신뢰감 상집단	1.3765	.58687	17
	합계	1.2082	.43390	49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2467	.41584	30
	신뢰감 중집단	1.2300	.27739	20
	신뢰감 상집단	1.0824	.14246	17
	합계	1.2000	.32845	67
합계	신뢰감 하집단	1.1741	.37071	54
	신뢰감 중집단	1.1235	.22929	68
	신뢰감 상집단	1.1800	.38173	50
	합계	1.1558	.32502	172



<표 4>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109 <sup>a</sup>	8	.235	3.888	.000
절편	177.002	1	177.022	2610.113	.000
정치효능감	.469	2	.234	3.457	.034
정치신뢰감	.269	2	.135	1.984	.141
정치효능감*	1.271	4	.318	4.684	.001
오차	11.054	163	.068		
합계	210.000	172			
수정 합계	13.163	171			

\*a. R제곱 = .160 (수정된 R제곱= .119)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경험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0000	.00000	11
	신뢰감 중집단	1.0000	.00000	29
	신뢰감 상집단	1.0000	.00000	16
	합계	1.0000	.00000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0000	.00000	13
	신뢰감 중집단	1.0526	.15765	19
	신뢰감 상집단	1.3611	.61371	18
	합계	1.1500	.40721	50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1333	.36984	30
	신뢰감 중집단	1.0263	.11471	19
	신뢰감 상집단	1.0000	.00000	17
	합계	1.0682	.26145	66
합계	신뢰감 하집단	1.0741	.28163	54
	신뢰감 중집단	1.0224	.10419	67
	신뢰감 상집단	1.1275	.39803	51
	합계	1.0698	.27744	172

<표 5>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소스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816 <sup>a</sup>	8	.727	3.471	.001
절편	546.611	1	546.611	2609.947	.000
정치효능감	4.585	2	2.293	10.947	.000
정치신뢰감	1.134	2	.567	2.707	.070
정치효능감*	.344	4	.086	.411	.801
오차	33.719	161	.209		
합계	644.041	170			
수정 합계	39.535	169			

\*a. R제곱 = .147 (수정된 R제곱 = .105)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오프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6623	.38478	11
	신뢰감 중집단	1.6897	.35215	29
	신뢰감 상집단	1.7946	.44559	16
	합계	1.7143	.38333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7363	.48038	13
	신뢰감 중집단	1.8346	.50229	19
	신뢰감 상집단	1.8908	.48846	17
	합계	1.8280	.48531	49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9762	.51995	30
	신뢰감 중집단	2.0301	.41123	19
	신뢰감 상집단	2.3214	.50170	16
	합계	2.0769	.49941	65
합계	신뢰감 하집단	1.8545	.49758	54
	신뢰감 중집단	1.8273	.43326	67
	신뢰감 상집단	2.0000	.52245	49
	합계	1.8857	.48367	170

<표 6>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6.096 <sup>a</sup>	8	.762	1.573	.137
절편	621.481	1	621.481	1283.210	.000
정치효능감	3.542	2	1.771	3.657	.028
정치신뢰감	.952	2	.476	.983	.376
정치효능감*	1.427	4	.357	.737	.568
오차	78.459	162	.484		
합계	767.222	171			
수정 합계	84.555	170			

\*a. R제곱 = .072 (수정된 R제곱 = .026)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오프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8485	.58431	11
	신뢰감 중집단	1.7586	.58348	29
	신뢰감 상집단	1.8958	.61727	16
	합계	1.8155	.58576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8718	.81125	13
	신뢰감 중집단	2.0702	.79021	19
	신뢰감 상집단	1.9815	.70916	18
	합계	1.9867	.75581	50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2.1000	.79341	30
	신뢰감 중집단	2.0175	.49032	19
	신뢰감 상집단	2.4583	.79699	16
	합계	2.1641	.72916	65
합계	신뢰감 하집단	1.9938	.75650	54
	신뢰감 중집단	1.9204	.63323	67
	신뢰감 상집단	2.1067	.73906	50
	합계	1.9981	.70525	171

<표 7> 온라인 전통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온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835 <sup>a</sup>	8	.729	2.203	.030
절편	305.969	1	305.969	924.109	.000
정치효능감	4.186	2	2.093	6.321	.002
정치신뢰감	1.436	2	.718	2.168	.118
정치효능감*	.441	4	.110	.333	.855
오차	52.644	159	.331		
합계	402.480	168			
수정 합계	58.479	167			

\*a. R제곱 = .100 (수정된 R제곱 = .054)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온라인 전통적 참여의사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1636	.33248	11
	신뢰감 중집단	1.2414	.31794	29
	신뢰감 상집단	1.3625	.43340	16
	합계	1.2607	.35761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2000	.34641	13
	신뢰감 중집단	1.4000	.65659	19
	신뢰감 상집단	1.4933	.74014	15
	합계	1.3745	.61661	47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5867	.68669	30
	신뢰감 중집단	1.5053	.45396	19
	신뢰감 상집단	1.8125	.88081	16
	합계	1.6185	.68349	65
합계	신뢰감 하집단	1.4074	.58916	54
	신뢰감 중집단	1.3612	.47894	67
	신뢰감 상집단	1.5574	.71983	47
	합계	1.4310	.59175	168

<표 8>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의 영향

종속변수: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소스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3.208 <sup>a</sup>	8	.401	2.027	.046
절편	212.704	1	212.704	1075.376	.000
정치효능감	.524	2	.262	1.325	.269
정치신뢰감	.556	2	.278	1.406	.248
정치효능감*	1.755	4	.439	2.218	.069
오차	31.845	161	.198		
합계	268.000	170			
수정 합계	35.053	169			

\*a. R제곱 = .092 (수정된 R제곱 = .046)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온라인 비전통적 참여의사

효능감 집단	신뢰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효능감 하집단	신뢰감 하집단	1.1818	.40452	11
	신뢰감 중집단	1.0517	.20463	29
	신뢰감 상집단	1.0625	.25000	16
	합계	1.0804	.26589	56
효능감 중집단	신뢰감 하집단	1.0000	.00000	13
	신뢰감 중집단	1.2105	.50870	19
	신뢰감 상집단	1.5294	.83798	17
	합계	1.2653	.61324	49
효능감 상집단	신뢰감 하집단	1.1833	.44496	30
	신뢰감 중집단	1.1579	.37463	19
	신뢰감 상집단	1.1875	.51235	16
	합계	1.1769	.43688	65
합계	신뢰감 하집단	1.1389	.38137	54
	신뢰감 중집단	1.1269	.36248	67
	신뢰감 상집단	1.2653	.61324	49
	합계	1.1706	.45543	170

## The Study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through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Jong-Won Ha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Sun 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as a way of 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young people under the new age of the Internet. From the survey in which 221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there were several findings: first, overall political efficacy has a predomin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both offline and online; second, political trust has little impact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third, there showed up tw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for the online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in politics. It is found that in high efficacy group people with low trust are most likely to participate, while in medium efficacy group people with high trust are most likely to participate. In low efficacy group, however, political trust didn't make any differ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 are more factors that may predict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deology, and demographic variables. For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in combination with these other variables to explain political participation by offline and online.

Key words : Political Participation, Conventional Participation,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Internet,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